

도시와 국가 욕망의 변주곡*

- '도시' 이념과 상하이 세계박람회

홍준형**

<目 次>

1. 들어가며
2. 박람회와 지역 개발
3. 상하이의 욕망과 박람회가 만들어낸 도시 '풍경'
4. 중국 국가관과 박람회의 '도시' 이념
5. 덧붙이는 말

1. 들어가며

2010년 상하이에서는 세계박람회(Expo 2010 Shanghai China)가 개최되었다. 상하이 세계박람회는 중국에서 개최된 최초의 세계박람회로서 2008년의 베이징 올림픽에 이어 21세기 초강대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의 위상과 저력을 전 세계에 알린 거대한 국제적 이벤트였다. 2010년 5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장장 6개월에 걸쳐 진행된 상하이 세계박람회는 전 세계 192개국과 50개 국제기구, 그리고 19개의 기업관이 참가하여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하였고, 관람객 수도 역대 최고인 무려 7000만 명을 넘겼다.

최초의 세계박람회인 1851년 런던 세계박람회가 전성기 대영제국의 번영과 식민 경영의 성과를 만방에 과시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출발했던 것처럼 그동안 세계

* 이 논문은 2010년도 정부재원(교육과학기술부 인문사회연구역량강화사업비)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NRF-2010-327-A00384).

** 동덕여자대학교 중어중국학과 부교수

박람회는 줄곧 상공업 진흥이나 새로운 과학기술 성과의 전시와 함께 그것을 개최하는 국가의 정치적 욕망과 무관하지 않았다. 주지하는 바지만 상하이 세계박람회의 개최 또한 주최국인 중국의 정치적 욕망이 강하게 투영된 것이었다. 중국 정부는 수 년 간에 걸쳐 세계박람회의 유치와 성공을 위해 막대한 자본을 투입하였고, 각종 외교적 노력과 국민 총동원을 통해 박람회를 세계 대국으로서의 위용을 전 세계에 과시하고 확인 받는 상징적인 의식의 장으로 만들고자 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상하이 세계박람회는 개최도시인 상하이의 욕망이 강렬하게 표출된 문화적 이벤트이기도 했다. 이는 특히 ‘도시, 생활을 보다 아름답게 (Better City, Better Life)’라고 명명된 박람회의 주제에서 잘 드러났는데, ‘도시’를 화두로 내세운 세계박람회의 주제는 자연스럽게 개최도시인 상하이가 근대 중국 최대의 개항장이자 근대화와 도시화의 선구였다는 점에 주목하게 된다. ‘도시’라는 주제는 전지구적으로 산업화에 따른 도시적 삶의 확대와 이에 따른 인류 발전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물음이라는 점에서 보편적인 것이지만 근대 이후 중국의 도시 발전을 이끌어왔던 상하이의 입장에서 자신의 가치를 잘 발휘할 수 있는 주제이다.¹⁾ 게다가 개항 150주년을 맞아 상하이 스스로도 진정한 글로벌 리더 도시로의 성장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상당히 의미 있고 야심찬 선택이라 할 수 있었다. 실제로 세계박람회의 주제 선정 과정에는 개최도시인 상하이의 의도와 문화적 상상력이 강하게 개입되었다.²⁾ 조그마한 무역항에서 아편전쟁 이후 조계로 표상되는 타자화의 과정을 거쳐 중국, 나아가 아시아 최대의 상업 도시로 성장한 상하이의 입장에서 세계박람회는 그동안 겪어왔던 타자화의 굴레를 벗어던지고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이라는 세계사의 큰 흐름 속에서 담론의 주체로 올라설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던 것이다.

사실 세계박람회는 첨단과학기술의 전시장이지만 동시에 인류가 그동안 축적해 온 과학기술과 문화적 상상을 바탕으로 인류의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1) 상하이 세계박람회의 주제 선정과정에 대해서는 다음의 글 참조 할 것. 〈中國的選擇: 上海世博會主題誕生始末〉, 《上海教育》, 2008年 第23期: 炳穎, 〈2010年世博會主題誕生的始末〉, 《上海綜合經濟》, 2003年 第4期: 朱林楚, 「世博主題誕生回眸」 (http://blog.sina.com.cn/s/blog_866e3eec0100v5zt.html).

2) 炳穎, 〈2010年世博會主題誕生的始末〉, 《上海綜合經濟》, 2003年 第4期, 11쪽.

이를 공유하는 문화와 문명의 소통의 장이기도 하다. 그래서 일반적인 산업 전시회나 무역 촉진회 등과 달리 세계박람회에서는 무엇보다도 박람회의 이념과 지향을 제시하는 주제가 중요하다. 어떠한 의미에서 세계박람회는 곧 주제 박람회이며, 세계박람회의 성공 여부는 박람회가 제시한 이념이나 주제가 전지구적 차원에서 얼마나 의미 있는 기여를 했느냐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최근의 추세도 단순한 산업과 기술의 차원을 넘어 세계박람회를 통해 점차 문명과 지구, 공존과 화해, 자연과 환경 등 범인류적인 문제를 고민하고 모색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이런 근본적인 물음을 제기해 볼 수 있다. 2010년 세계박람회의 주제였던 '도시'와 관련하여 상하이, 그리고 중국은 과연 세계에 무엇을 보여주었나? 그들은 박람회의 이념인 '도시'의 문제를 어떻게 이해하였고, 또 박람회를 통해 그들이 그려낸 도시의 모습은 어떠한 것이었나? 일반적으로 세계박람회에서 주제는 대표적으로 다음의 두 가지 방식을 통해 구현된다. 첫째는 박람회의 주제와 이념을 핵심적으로 제시하는 주제관을 통해서이고, 둘째는 박람회의 이념을 토대로 참가국들이나 국제기구, 기업 등이 개별적으로 마련한 파빌리온과 전시물들을 통해서이다. 하지만 박람회장에 건설된 파빌리온이나 전시물만을 갖고 세계박람회의 성과와 의미를 온전히 평가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박람회의 속성상 전시된 것들은 모두가 일회적인 것으로, 주최국의 국가관 등 일부를 제외하면 거의 대부분은 박람회가 끝난 후 사라져 버리기 때문이다. 따라서 하나의 세계박람회가 보여준 성과를 제대로 조명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소프트웨어의 문제를 넘어 보다 거시적인 차원에서 개최국가와 개최도시의 정치적 목적과 문화전략, 지역개발 등 박람회를 둘러싼 다양한 주체의 욕망과 박람회 이념과의 상관관계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문제의식으로부터 2010년 상하이 세계박람회를 둘러싸고 다양하게 표출되었던 주체의 욕망과 '도시' 이념과의 관계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한다. 특별히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하는 이유는 상하이 세계박람회를 논의하고 평가하는데 있어 '도시' 문제가 대단히 중요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까지 관련 논의에서 이에 관한 비판적 검토가 충분하지 못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자국에서 개최된 세계박람회에 대해 비판적인 견해를 제기하기 어려웠던 중국의 상황은 그렇다 하더라도,³⁾ 국내의 경우에도 박람회가 열렸던 2010년을 전후해 꽤 여러 편의 논문이 나오긴 했지만 대개의 경우 정치적 관점에서 문제를 제기하거나 혹은 디자인, 공학, 건축 등 전문 분야에서 상하이 박람회의 몇 가지 측면들을 논의한 글이 대부분이었다.⁴⁾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논의들을 참고하면서 보다 거시적이고 이념적인 차원에서 박람회를 둘러싼 주체의 욕망과 박람회의 '도시' 문제에 관해 살펴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다음의 세 가지 단계를 통해 문제에 접근해 보고자 한다. 우선 첫째는 애초 상하이가 세계박람회 유치를 추진한 배경과 관련하여 박람회와 도시 개발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98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상하이 세계박람회에 대한 구상은 푸둥개발을 비롯한 상하이 지역 개발전략과 긴밀한 연관을 맺고 진행되었다. 여기에서는 1990년대 푸둥개발부터 2000년대 메갈로폴리스계획에 이르는 상하이의 지역 개발 전략과 박람회의 관계에 대한 고찰을 통해 애초 상하이가 박람회를 개최하고자 했던 목적과 과정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둘째는 상하이 세계박람회의 주제인 '도시' 문제와 관련해 박람회가 보여준 도시의 '풍경'에 대해 비판적으로 검토해 보고자 한다. 박람회를 통해 과연 중국은 그리고 상하이는 무엇을 보여 주었는가? 주제에서 제시한 '보다 아름다운 도시 생활'에 대한 염원은 과연 박람회를 통해 얼마만큼 구현되었으며, 또 구체적으로 어떠한 모습으

3) 국가적 차원의 이벤트에 대해 대개 그러했듯 상하이 세계박람회에 대해서 중국 내부의 비판적인 목소리는 전반적으로 두드러지지 않았다. '도시' 문제에 국한해서도 박람회를 통한 상하이 개발의 시각으로부터 도시 개발의 청사진과 그 활용방안에 대해 많은 글들이 쏟아져 나왔으나 비판적이고 문화적인 시각에서 박람회와 '도시'의 문제를 논의한 성과는 드물었다. 중국 내부에서 비교적 예외적으로 비판적인 시각에서 상하이 세계박람회를 논의한 글로는 다음 글을 참조할 것: 朱大可, 〈上海世博會的文化拼圖〉, 《二十一世紀》(雙月刊), 2010年10月號, 總第121期; 레이 치리, 〈전시되는 것과 은폐되는 것: 세계박람회는 상하이에 무엇을 남길까〉, 《플랫폼》, 2007년 11·12월호(통권 6호).

4) 국내의 성과 가운데서는 주장현의 《상하이 세계박람회-상하이의 역사적 풍경과 파빌리온의 경관》(서울: 블루&노트, 2010)이 가장 눈에 띈다. 전문 연구서는 아니지만 방대한 자료와 현지 조사를 바탕으로 문화와 비평의 시각에서 상하이 세계박람회의 다양한 측면들을 다루고 있다.

로 나타났는가의 문제에 대해 검토할 것이다. 셋째는 상하이 세계박람회 중국국가관의 기획과 '도시' 이념과의 관계에 대해서 논의해 보고자 한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중국국가관은 2010년 상하이 세계박람회의 랜드 마크로서 박람회를 바라보는 중국의 국가적 욕망이 집약되었던 상징적인 건축물이었다. 중국은 이 상징적인 건축물과 공간의 배치를 통해 세계 대국을 향한 자신들의 문화적, 정치적 욕망을 표현하였는데, 그것이 주는 공간적 함의와 함께 상하이 박람회의 주제인 '도시' 이념과 관련해서 이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관해 논의해 보고자 한다.

2. 박람회와 지역 개발

상하이에서 박람회에 대한 구상이 처음으로 제기된 것은 1980년대 중반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1980년대 상하이의 비약적인 경제성장, 그리고 1990년대 초 남순강화(南巡講話)를 계기로 푸둥(浦東) 특구 개발을 핵심으로 하는 상하이 육성전략이 본격화하면서 박람회 유치가 추진되었다. 직접적인 모델은 1970년 오사카 박람회를 개최한 일본이었다. 일본은 1964년 도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한 데 이어 1970년에 오사카 세계박람회를 열어 선진국으로서의 국가적 역량과 산업기술의 성과를 전 세계에 알렸다. 또한 국내적으로도 박람회 개최를 위한 대규모의 공공사업을 통해 간사이 지역개발을 촉진하는 한편 국민 총동원을 통해 1950년대 중반 이래 정부가 추진해 온 고도성장의 신화를 국민들에게 확산시키는 효과를 거두기도 했다.⁵⁾ 실제로 상하이 박람회는 구상과 제안, 구체적인 기획과 실행에 이르기까지 철저히 일본의 경험을 모델로 하였다. 상하이에 처음으로 박람회를 제안한 사람이 바로 일본인이었고,⁶⁾ 올림픽에 이은 세계박람회 개최를 통해 국가

5) 1970년대 국가적 욕망과 개발주의의 산물로서 오사카 박람회의 추진 배경과 개최 과정에 대해서는 요시미 순야의 《만국 박람회 환상: 전후 정치의 주술과 시민의식》(이종욱 옮김, 서울: 논형, 2007), 62-72, 83-92쪽 참조.

6) 1984년 당시 일본 경제시찰단의 일원으로 상하이를 방문했던 사카이야 다이치(堺屋太一)라는 인물이 상하이에 세계박람회 유치를 권유하였다. 사카이야 다이치는 오사카 박람회와 오키나와 박람회를 비롯한 전후 일본의 개발 시기 주요 박람회를 직접 지휘했던 인물이

적 위상 제고와 지역 개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함께 잡고자 했던 것도 일본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것이었다.

상하이의 입장에서 무엇이든 국가적 이벤트를 통해 도시 전반의 역량과 기능을 강화하는데 가장 큰 목적이 있었다.⁷⁾ 1980년대와 90년대에는 주로 푸둥 개발을 중심으로 하는 도시 영역의 확대와 국제도시로서 성장을 위한 인프라 건설에 방점이 있었다. 주지하는 바처럼 푸둥 개발은 당시 상하이는 물론 중앙 정부가 명운을 걸고 추진했던 대형 지역 개발 사업이었다. 상하이의 입장에서 1980년대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도시 영역의 확대와 도시 기능의 재편을 통해 진정한 국제도시로 성장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고, 중앙정부에서는 푸둥 개발을 그동안 추진해 온 개혁개방의 성공을 대표하는 하나의 상징적 사건으로 만들어내어 상하이를 중심으로 동남권 개혁개방전략을 더욱 확대하고자 했다.

실제로 1988년 이후 상하이 정부가 작성한 세계박람회의 보고서들을 살펴보면 박람회 개최를 통해 푸둥 개발에 긍정적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입장이 분명하게 제시되어 있었다. 세계박람회가 상하이의 도시 개조와 건설을 통해 푸둥 지역에 대한 투자환경을 개선하고 푸둥 개발에 따른 경제적 이익을 증대시킬 뿐 아니라 푸둥을 중심으로 한 관광, 물류, 서비스 등 3차 산업의 성장을 확대할 것이라는 것이 골자였다. 그래서 최초로 박람회 부지로 선택되었던 곳 또한 푸둥에 있는 화무(花木) 지역이었다. 화무 지역은 현재 상하이 스지(世紀)공원이 위치한 곳으로, 나중에 박람회장이 변경되면서 일부가 남겨져 공원부지로 조성되었다.⁸⁾ 하지만 중화인민공화국 성립 50주년인 1999년에 맞추어 푸둥에서 세계박람회를 열고자

다. 1988년 상하이는 사카이야 다이치의 건의를 받아들여 중화인민공화국 성립 45주년인 1994년에 박람회 개최를 목표로 유치에 나설 것을 결정하였다. 하지만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박람회 유치의 목적은 주로 푸둥 지역 개발을 통한 도시 개발과 상하이의 국제적 위상 제고에 있었다. 그러던 것이 1992년 남순강화(南巡講話)를 계기로 푸둥(浦東) 특구 개발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경제, 금융, 무역 중심지로서의 상하이 육성 전략이 본격화하면서 상하이 세계박람회는 지방정부의 차원을 넘어 국가적인 프로젝트로 추진되기 시작하였다. (郁鴻生, 《立意上海世博會的歷史回眸》(上海: 上海辭書出版社, 2010), 1-3, 53-69쪽.

7) 當代上海研究所, 《世博會與上海新一輪發展大討論紀實》, 上海: 上海人民出版社, 2003: 「上海升級, 以世博的名義」, 《南方周末》, 2010年3月25日.

8) 198,90년대 상하이 세계박람회 부지 선정 과정과 푸둥 개발과의 관계에 대해선 郁鴻生の 《立意上海世博會的歷史回眸》 26-31쪽 참조.

했던 이때의 계획은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했다. 왜냐하면 본격적인 유치작업에 들어갈 무렵인 바로 1993년에 베이징의 2000년 올림픽 유치가 실패로 돌아갔기 때문이다. 당시 중앙정부에서는 일본의 모델을 따라 세계박람회와 올림픽의 연이은 개최를 희망하였는데, 2000년 올림픽 유치가 실패하면서 상하이 세계박람회 유치 계획 또한 수면으로 가라앉았다.

상하이의 세계박람회 유치 시도가 다시 본격화된 것은 1999년에 이르러서였다. 이때는 이미 베이징의 2008년 올림픽 유치가 결정된 상황이었고, 1990년대 상하이 경제의 눈부신 발전으로 인해 국제사회에서의 지명도도 급속히 제고된 상태에서 여러모로 세계박람회 유치에 유리한 조건이 조성되어 있었다. 그래서 그동안의 준비 경험을 토대로 1999년부터 상하이 주도로 본격적인 준비가 진행되었고, 중앙정부의 전폭적인 지지 아래서 2002년 12월에 2010년 세계박람회 개최권을 획득하였다.⁹⁾

2000년대에 들어서는 푸둥개발이 일단락된 상태였고, 상하이를 둘러싼 경제 환경과 도시 개발의 과제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이 시기 가장 큰 이슈는 창장삼각주 메갈로폴리스의 건설이었다. 창장삼각주 메갈로폴리스란 상하이를 중심으로 장쑤성과 저장성에 있는 창장삼각주 16개 도시를 한데 묶어 하나의 거대도시군으로 만들어내는 것이다. 이 지역은 지역내 총생산이 중국 GDP의 약 18%, 그리고 수출총액이 전체의 약 44%에 달할 정도로 중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은 지역인데, 메갈로폴리스 건설은 이 지역 내에 흩어져 있는 자본과 생산, 서비스, 상품시장을 하나로 묶고 산업구조를 통합하고 유기적으로 계열화하여 경쟁력 있는 글로벌 경제도시로서의 역량을 갖추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상하이는 세계박람회를 창장삼각주 메갈로폴리스의 중심 도시로서 상하이의 전반적인 도시 역량을 확대하는데 기회로 활용하고자 했다.¹⁰⁾ 사실 메갈로폴리스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시장과 산업구조의 개편에 앞서 이에 걸 맞는 도시 기반 시설의 확대와 역내 도시

9) 1999년 이후 상하이 세계박람회 유치 과정에 대해서는 孟紅, 〈上海世博會舉辦權申辦始末〉(《黨史縱橫》, 2010年 第4期) 참조.

10) 노수연, 〈상하이 엑스포와 창장삼각주 메갈로폴리스의 발전〉, 《중국성(省)별동향브리핑》, 10-14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0.

간의 교통 연계성을 제고하는 것이 필수적이었는데, 박람회를 통한 공공건설의 확대를 통해 이를 앞당기고자 했다. 실제로 박람회 덕택에 “10년 혹은 20년 걸릴 도시 공공 인프라 투자가 한꺼번에 다 이루어졌다”고 할 만큼 상하이 박람회 개최를 통해 도시 공공 인프라의 비약적인 성장을 거두었다. 세계박람회 개막에 맞추어 홍차오 공항 제2터미널이 문을 열었고, 총 연장 767km에 달하는 상하이 광역 고속화 도로망도 완비되었다. 또한 시 중심 지역과 황푸장을 연결하는 4개의 대교 및 12개의 지하터널이 건설되어 고질적인 푸둥과 푸시간의 교통 연계 문제를 해결하였으며, 13개 노선 총 연장 420km에 달하는 상하이 지하철망도 구축되어 메갈로폴리스를 위한 도시 광역화와 교통 편의성의 크게 개선할 수 있었다.¹¹⁾

이와 함께 2000년대 상하이 도시개발과 관련해 또 한 가지 중요한 문제로 대두된 것은 바로 도시 공간과 기능의 재배치 문제였다. 1990년대 이래 푸둥 개발로 대표되는 도시 공간의 광역화와 신도시 개발, 그리고 기존의 공업 중심에서 금융, 무역, 서비스 중심으로의 도시 산업 구조의 개편은 상하이 경제가 짧은 시간 비약적인 경제 성장을 이루는 원동력이 되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도시 내부의 균형 발전에 있어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기도 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황푸장(黃浦江) 연안 지역을 비롯한 푸시의 구도심 지역들이 낙후하면서 주거, 환경, 산업 등에 여러 사회 문제를 야기하게 되었다. 그래서 2000년대 초부터 상하이는 황푸장 연



[그림 1] 상하이 세계박람회 부지

11) 〈上海升級,以世博的名義〉,《南方周末》,2010年3月25日.

안 구 도심지역의 재개발과 재생을 위해 '황푸장 연안 종합개발계획'을 세우고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왔다. '황푸장 연안 종합개발계획'이란 과거 중공업과 운송, 물류의 중심지였던 황푸장 연안 지역을 새롭게 개발하여 상하이의 신성장 산업인 금융, 관광, 무역, 문화, 생태 주거지역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것이다. 상하이 세계박람회를 황푸장 연안 종합개발계획과 연계함으로써 도시 재생과 함께 도시의 신성장 산업의 중심으로 만들고자 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상하이 세계박람회가 열렸던 난푸(南浦)대교 부근의 지역이었다. 원래 이 지역은 강남조선소와 상하이제철을 비롯한 대형 국유기업들이 위치하고 있던 곳으로서 공업 생산과 물류와 교통의 연계와 편의성으로 인해 196,70년대 상하이 공업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했던 곳이다. 하지만 1980년대 이후 상하이의 산업 중심이 푸둥을 비롯한 신개발지역으로 옮겨가고, 산업 구조의 중심 또한 무역과 금융, 서비스 위주로 재편되면서 발전이 정체되어 전반적인 도시 기반시설이나 주거환경이 대단히 낙후되었다. 그래서 1990년대부터 줄곧 재개발의 필요성이 요청되어 왔는데, 상하이는 이 지역을 세계박람회 부지로 선정함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하고 향후 상하이 산업 경제에 핵심이 되는 새로운 거점지역으로 육성하고자 했다.¹²⁾ 특히 이 지역은 상하이의 최고 중심지라 할 수 있는 푸시의 와이탄(外灘)과 푸둥의 루자쭈이(陸家嘴)로부터 불과 7Km 정도 밖에 떨어져 있지 않는 사실상의 도심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향후 상하이의 도시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가능성이 높았다. 실제로 박람회 이후 이 지역은 와이탄과 루자쭈이를 잇는 전시, 문화 컨벤션 중심의 도심형 서비스 산업 및 환경친화형 고급 주거주역으로 탄생을 목표로 현재 사후 개발과 건설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12) 崔寧, 《重大城市事件下城市空間再構—以上海世博會爲例》, 南京: 東南大學出版社, 2008, 100-114쪽.

3. 상하이의 욕망과 박람회가 만들어낸 도시 '풍경'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상하이가 애초에 세계박람회를 유치하고자 한 가장 큰 의도는 무엇보다도 푸둥개발로부터 메갈로폴리스 건설로 이어지는 도시개발과 경제적 파급 효과, 그리고 상하이의 국제적 위상 제고였다. 그러나 실제로 박람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점차 세계박람회가 단순한 교역 촉진회나 과학기술 전시회가 아닌 고도한 문화 정치적 공간임을 인식하게 되면서 박람회를 통해 문화적 담론 주체로서의 상하이의 이미지와 위상을 제고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게 되었다. 이를 위해 상하이는 박람회 준비 기간 동안 수차례에 걸친 각종의 국제회의 개최를 통해 도시와 관련한 국제적 담론의 주도자로 나서기 위해 노력하였다.¹³⁾ 또한 국내적으로도 상하이의 도시인문정신과 문화전략을 주제로 한 다수의 컨퍼런스와 문화 활동을 개최하여 하나의 문화전략으로서 세계박람회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관한 다양한 논의들을 이어갔다.¹⁴⁾

하지만 박람회를 통해 이러한 노력들이 얼마나 실제적으로 구현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하드웨어적인 도시 기반 시설의 확충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목표로 한 사회 재생산 시스템 확보는 상당정도 진척이 되었지만 상하이라는 도시의 인문정신과 도시이념을 창출하고 세계적으로 그 공감대를 확보하는 데는 좋은 점수를 주기 어렵다. 꼭 지적해야 할 대목은 과연 세계박람회를 통해 상하이가 무엇을 보여주었는가 하는 점이다. 주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개최 도시로서

13) 대표적으로 상하이가 세계박람회사무국(BIE)와 함께 개최한 2010년 상하이세계박람회 국제포럼을 들 수 있다. 2003년부터 2009년까지 '도시 미래', '도시 문화',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 '도시문화의 다윈과 융합' 등을 주제로 상하이, 파리, 아이치, 사라고사, 베이징 등에서 모두 7차례 열렸다. 또 박람회를 전후해서는 닝뽀어, 쑤저우, 우시, 난징, 샤오싱, 항저우 등의 도시에서 '정보화와 도시발전', '도시혁신과 문화전승', '과학기술 혁신과 도시 미래', '경제 발전과 도시 및 농촌의 상호 보안', '조화도시와 살기 좋은 삶' 등을 주제로 모두 6차례의 주제 포럼을 개최되었으며, 박람회 기간 중 박람회장에서 도시의 혁신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주제로 고위급 포럼을 열리기도 하였다. 이 밖에도 박람회 준비 기간 동안 도시와 관련하여 상하이시와 조직위원회, 중국정부, 대학 등이 주체가 되어 여러 국제회의와 포럼이 개최되었다.

14) 上海證大研究所, 《文化上海 2010: 把一個什麼樣的上海帶給中國和世界》(北京: 人民出版社, 2003) 참조.

상하이 박람회에서는 보여주어야 했던 것은 그동안의 도시발전 경험을 바탕으로 도시 생활을 보다 인간답고 지속가능하게 할 수 있는 새로운 차원의 도시의 모습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과거 성장과 개발로 상징되는 근대 도시의 발전 모델에 대한 반성과 함께 바람직한 도시생활의 모습에 대한 새로운 상상과 비전을 보여주어야 했다.

사실 1958년 브뤼셀 세계박람회를 기점으로 세계박람회는 점점 더 첨단과학기술 전시와 국력의 과시와 같은 외형적 차원을 넘어 환경, 생태, 조화, 자연 등 인류 공동의 문제에 관해 고민하고 논의하는 장으로서 역할을 강화해하기 시작했다. 2차 세계대전의 폐해를 딛고 개최된 브뤼셀 박람회의 주제가 ‘과학, 문명, 인성’이었고, 1970년 오사카 박람회는 ‘인류의 진보와 조화’, 1974년 스포캔 박람회는 ‘미래를 향한 친환경’, 그리고 2000년 하노버 박람회는 ‘지속가능한 발전: 인류, 자연, 기술’을 주제로 내세워 기술을 통해 자연과의 균형점을 찾아가는 인류의 모색을 다루었다.¹⁵⁾ 특히 ‘자연의 예지’를 주제로 삼은 2005년 아이치 박람회는 개발주의를 반성하고 혁신과 전통의 조화를 통해 환경과 생태 등 인류 공동의 미래적 과제를 담은 환경 박람회로서의 주제의식을 박람회장 건설과 파빌리온의 건축은 물론 전시와 행사, 첨단기술의 활용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담아냄으로써 21세기 이념형 박람회의 모범적인 사례를 보여 주었다.¹⁶⁾ 또한 박람회 추진 과정에서도 시민들의 직접적인 참여와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함으로써 그동안의 국가 주도의 일방적 박람회 운영 모델이 아닌 새로운 시민 참여형 세계박람회의 가능성을 보여주기도 했다.¹⁷⁾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상하이 박람회는 아이치 박람회를 이어 ‘도시’라는 구체적인 삶의 터전에서 인간의 삶을 어떻게 더욱 아름답고 조화롭게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모색이 일관되게 이루어졌어야 했다. 그래서 개발지상의 근대적 도시의

15) 1958년 이후 세계박람회의 변화 과정과 각 박람회의 세부 주제 및 내용에 관해선 다음 책들을 참고할 것: 오룡, 《상상력의 전시장 엑스포》, 서울: 다우, 2012; 周秀琴, 李近明 編著, 《EXPO 文明的輝煌: 走進世界博覽會歷史》, 上海: 學林出版社, 2007.

16) 개발주의를 반성하고 환경박람회를 선택한 아이치 박람회의 변화에 대해선 요시미 순야의 《만국 박람회 환상: 전후 정치의 주술과 시민의식》, 205-212쪽 참조.

17) 요시미 순야, 《만국 박람회 환상: 전후 정치의 주술과 시민의식》, 237-261쪽 참조.

한계를 넘어 지속가능한 미래지향적 도시에 대한 각국의 구체적인 경험과 실천방향을 박람회를 통해 구현하고 논의하는 교류의 장이 되었어야 했다. 사실 '문명'이나 '자연'에 비해 '도시'라는 주제는 논의의 대상이 상대적으로 명확하고 구체적이다. 전 세계 인구의 50% 이상이 도시에 살고 있으며 근대의 역사는 어떤 면에서 곧 도시의 역사였다. 앞서 '자연'과 '문명'을 주제로 한 박람회가 거시적 차원에서 기술 진보에 대한 반성과 함께 그 대안을 모색해 온 것이라면 이제는 본격적으로 구체적인 도시라는 공간을 통해 이를 보다 실현가능한 모델로 제시할 수 있어야 했다. 실제로 박람회장은 하나의 작은 도시이다. 만약 상하이 박람회가 박람회라는 작은 도시를 통해 진정으로 이러한 모델을 만들어 내었다면 어땠을까? 그것은 150년 세계박람회 역사에 있어 중요한 전환이자 인류사의 획을 긋는 의미 있는 이정표가 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상하이는 그러한 미래를 보여주지 못했다. 물론 표면적으로는 상하이 박람회 역시도 친환경, 생태, 자연과 기술의 조화 등을 강조했다. 박람회장에 우뚝 솟은 화려한 파빌리온들은 저마다 친환경과 생태, 저탄소, 녹색 등을 내세웠고 기술과 자연, 인류와 문명이 조화를 이루는 아름다운 도시의 미래를 이야기했다. 다섯 개의 파빌리온으로 이루어진 주제관들과 박람회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엑스포 센터는 모두 친환경적 설계와 재생 에너지 공법을 활용해 건축된 것이었고, 개최국인 중국관을 비롯한 각국의 전시관들도 건축물의 외관은 물론 전시 내용에 이르기까지 앞

다투어 친환경 기술, 재활용 소재, 재생 에너지, 자연 친화 등을 강조하였다. 박람회장의 전반적인 관리와 조경, 교통 시스템도 기본적으로 자연 친화와 생태, 저탄소를 기조로 하였고, 기존 부지에 있었던



[그림 2] 선진도시전시관

공장건물을 개조하여 만든 선진도시전시관은 중국과 세계 각국의 미래 지향적 도시 개발 성과와 그 실천사례를 소개함으로써 친환경 도시박람회로서의 이념과 면모를 과시하였다.¹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유는 ‘도시, 생활을 보다 아름답게’란 주제를 내세웠던 상하이 박람회가 대단히 역설적이게도 도시 생활의 아름다움보다는 오히려 현대 도시 생활이 안고 있는 여러 부정적인 측면을 압축해서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세계박람회를 위해 무려 4000억 위안 이상이 투입된 대규모의 도시 개조 사업은 상하이의 도시 기반과 각종 하드웨어를 강화하는데 크게 기여했지만, 반면 대량의 자원과 에너지 소모, 그리고 환경오염을 유발시킴으로써 저탄소와 녹색, 친환경을 표방한 박람회의 이념을 무색케 했다.¹⁹⁾ 또한 21세기형 박람회를 지향한다면서도 기존의 도시개발 방식에서 크게 나아가지 못한 채 여전히 도심에 박람회장을 건설하기 위해 그곳에 살고 있던 수많은 주민들을 강제 이주 시키고 철거하는 기존의 방식을 답습했던 점도 아쉬움으로 남았다.²⁰⁾

상하이 시민들도 국가적 이벤트를 개최하는 대가로 적지 않은 희생을 감수해야만 했다. 주최 측이 사상 최대인 7000만 명의 관람객 수를 목표로 잡으면서, 몰려든 관람객들로 인해 상하이는 박람회 기간 내내 극심한 교통 체증에 시달려야 했고, 박람회 개최에 따른 각종의 교통관제와 생활 규제로 인해 많은 불편을 겪어야 했다. 박람회장에서도 살인적인 무더위에 국가관 한 곳을 관람하기 위해 많게는 무려 대여섯 시간이 넘는 줄을 서야 했으며, 편의시설의 부족과 바가지요금으로 인해 사람들은 박람회를 관람하며 도시의 ‘아름다운 미래’를 경험하기는커녕 짜증과 고통 속에서 원성을 쏟아 내야만 했다.²¹⁾ 또한 언론에서 여러 차례 지적했던

18) 주강현, 《상하이 세계박람회-상하이의 역사적 풍경과 파빌리온의 경관》, 276-297쪽 참조.

19) 朱大可, 〈上海世博會的文化拼圖〉, 《二十一世紀(雙月刊)》, 2010年10月號, 總第121期, 143-144쪽.

20) 중국 관방에 의해 상하이 세계박람회에 관해 한 언론이 통제된 상황에서 박람회에 관한 대부분의 비판적 뉴스는 보진과 같은 서방 중국어 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박람회부지 철거 과정과 주민들의 이에 대한 증언을 대해선 「世博會拆遷給上海市民造成的困苦(1)~(5)」(<http://boxun.com/news/gb/china/2010/02/201002211402.shtml>) 참조 .

21) 〈物價飛漲與世博會有關〉(http://blog.sina.com.cn/s/blog_44882bb90100grb7.html).

것처럼 시민의식의 부족으로 인해 박람회장 곳곳은 쓰레기로 넘쳐났고 더위에 지친 관람객들이 벤치에 드러눕고 분수에 발을 담그는 등 갖가지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반문명적 행위가 나타나기도 했다.²²⁾ 과연 이것이 상하이 세계박람회가 추구했던 ‘아름다운 도시’의 모습이었는가? 표면적으로 내세웠던 박람회의 주제와 현실 사이에 나타난 이러한 괴리는 많은 이들에게 ‘도시’를 이념으로 세운 박람회의 의미와 성과에 대해 깊은 회의와 의구심을 갖게 했다.²³⁾ 오죽하면 소설가 한한(韓寒)이 도시가 삶을 아름답게 할 것이라는 주제를 내세운 박람회를 풍자해 ‘아름다운 도시’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하루라도 빨리 박람회가 끝나는 것이라고 했을까?²⁴⁾

혹자는 세계박람회라는 거대한 이벤트를 치르는데 있어 이런 정도의 부작용은 불가피한 것이라고 말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것은 박람회를 바라보는 의식과 의지의 문제이지 반드시 불가피한 것만은 아니다. 바로 전에 개최되었던 아이치 박람회가 그 좋은 예이다. 아이치 박람회 또한 처음에는 성장 이데올로기인 지역 개발의 논리로부터 출발하였다. 하지만 구체적인 준비 과정에서 전문가와 시민사회의 여론을 수용하여 점차 환경 박람회로 이념을 조정하였고, 생태환경의 보존을 위해 박람회장 부지를 옹기고 박람회 규모도 줄였다. 또한 지역 사회의 협의를 통해 시민들의 행사를 적극 수용하는 한편 박람회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했다.²⁵⁾ 그래서 아이치 박람회는 세계박람회 역사상 대표적인 이념형 박람회로서의 중요한 진전을 이루었다고 평가받고 있다.

상하이 박람회는 아이치로부터 본격화된 이러한 유의미한 시도를 다시 원점으로 돌려놓았다. 상하이 박람회는 박람회장 규모, 참가국 수, 관람객 수, 총 투자액 등 거의 모든 측면에서 역대 최고를 추구하였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사람들은 인류의 지속가능한 미래와 조화로운 도시생활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모색보다는

22) 朱大可, 〈上海世博會的文化拼圖〉, 152-154쪽.

23) 袁衛東, 〈何爲中國價值〉 (<http://blog.ifeng.com/article/5342005.html>)

24) 韓寒, 2009년 11월 18일 ‘엑스포 포럼 겸 제4회 嘉定자동차 포럼’에서의 강연, (<http://www.aboluowang.com/2009/1124/150857.html#sthash.zHvGw9Gb.dpbs>)

25) 요시미 순야, 《만국 박람회 환상: 전후 정치의 주술과 시민의식》, 205-210, 223-238, 255-257쪽.

화려한 과학기술이 동원된 거대한 스펙터클과 매일매일 벌어지는 갖가지 환상적인 오락과 이벤트에 열광했고, 무엇을 보았느냐 보다는 얼마나 많은 곳을 들렀느냐에 관심을 두며, 개혁개방 이래 중국이 거둔 엄청난 경제발전의 성과와 국력의 크기를 감탄하기에 바빴다. 물론 박람회라는 것이 인류 공동 이념이나 첨단과학기술에 대한 소개와 함께 개최국의 산업기술의 성과와 대중적 오락의 장을 제공한다 는 측면도 분명히 있다.²⁶⁾ 그러나 그것은 지속적이 것이 아니며 하나의 이벤트로서 사라져 버리는 것들이다. 사실 세계박람회가 주도했던 소비의 시대는 이미 지나갔다. 새로운 기술과 상품은 더 이상 5년마다 열리는 세계박람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다. 그저 세계박람회라는 이벤트를 통해 다시 한 번 복제되고 반복될 뿐이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상하이 박람회의 개최가 인류 공동의 미래에 대한 고민이나 현재 인류 문명사에 있어 중국의 역할과 같은 문화적 가치로부터 보다는 주로 개혁개방 이후 중국의 성장과 발전의 성과를 대내외에 과시하려는 국가적 욕망과 개발주의로 상징되는 상하이의 욕망이 한데 결합된 결과로부터 나온 것이라는 점과 깊은 관련이 있다. 국가적 욕망이 있었기에 역대 최고를 목표로 참가국과 관람객의 수에 목을 매어야 했고, 상하이 도시개발의 이익과 부동산 개발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 사상 유례 없이 도심 한 복판에다 박람회장을 건설해야 했다. 또한 사람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엄청난 자본을 투입하여 화려한 웅장한 박람회장과 파빌리온을 지어야 했고 첨단기술을 동원한 화려한 스펙터클과 다양한 볼거리를 만들어야 했다.

사실 역사적 측면에서 볼 때 상하이 박람회의 가장 큰 문제는 표면적으로 21세기 이념형의 박람회를 지향한다면서도 실질에 있어서는 여전히 20세기적인 개발주의, 성장주의의 위주의 박람회 모델을 벗어나지 못했다는 데 있다. 물론 박람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문제 자체를 의식하지 못했던 것은 아니다. 그래서 세계박람회의 이념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단순한 정치적, 경제적 목적을 넘어 진정한 이념형의 박람회로 만들어내야 내야 한다는 목소리도 끊임없이 있어 왔다. 하

26) 영상을 통해 구축된 박람회의 도시 상상과 이에 다른 서로 다른 경험과 체험에 관해서는 陸曄, 〈影像都市的建構與體驗—以2010上海世博會爲個案〉, 《新聞大學》, 2012, 112期 참조.

지만 결과적으로 국가의 욕망과 상하이의 욕망이 강고하게 결합된 이벤트의 공간에서 이념과 주제는 그러한 욕망을 실현시키는 보조적 위치로서만 의미를 가질 뿐 보다 본질적인 차원에서 박람회 전체를 기획하고 추동해 나가지 못했다. 국가적 욕망과 지역 개발의 논리 속에서 ‘도시, 생활을 보다 아름답게’라는 주제는 보다 근본적인 인류의 모색과 가능성의 공간으로 나아가지 못한 채 외형만 화려한 창백한 수사가 되어버리고 말았다.

4. 중국 국가관과 박람회의 ‘도시’ 이념

최초의 세계박람회였던 런던 박람회부터 세계박람회는 기본적으로 국가 프로젝트의 성격을 띠었고 그것은 상하이 세계박람회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오히려 중국의 입장에서 볼 때 박람회는 그동안의 급속한 경제 성장을 바탕으로 올림픽에 이어 중화의 부흥의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다. 이는 일찍이 1993년에 작성된 「1999년 세계박람회 상하이 개최에 관한 구상」이라는 공식 보고서에서 “상하이에서 세계박람회를 개최하는 것은 중국의 강국공정이자 세기 공정으로서 국가로 볼 때는 하나의 국가적 공정이며 상하이의 입장에서는 발전 공정이자, 개방 공정 그리고 지표성 공정이다”라고 명확히 밝히고 있는 것에서도 잘 드러나는 바이다.²⁷⁾ 앞서 살펴보았지만 당시 올림픽(올림픽은 2000년)과 동시에 세계박람회 개최를 추진하다 올림픽 유치가 실패하면서 세계박람회의 개최 계획도 함께 무산되었던 것도 같은 이유에서였다. 바로 이로부터 우리는 상하이 세계박람회를 단지 독립적인 이벤트가 아닌 2년 전 베이징에서 열린 올림픽과의 종합적인 시야 속에서 관찰하고 논의할 필요가 있다. 다만 상대적으로 볼 때 올림픽에 비해 보편적인 주제를 중심으로 과학기술과 문화, 문명의 교류와 소통을 강조하는 세계박람회의 특성상 그러한 국가적 욕망은 보다 정제되고 간접적인 방식을 통해

27) “將上海舉辦世博會看成是中國的一項強國工程、世紀工程，對國家來說是一項國家工程。對上海來說是一項發展工程、開放工程和標志工程。”(郁鴻生，《立意上海世博會的歷史回眸》，10쪽에서 재인용)

전달되기 마련이다. 또한 올림픽 이후 중국의 국가주의 색채에 대한 국제적 비판이 적지 않았기 때문에²⁸⁾ 상하이 세계박람회는 중국 스스로도 자신의 특수성보다는 문화적 보편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박람회의 설계와 콘텐츠의 구상에 이르기까지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중요한 국가적 이벤트이자 21세기를 향한 중국의 강대국 프로젝트로 기획된 상하이 세계박람회의 성격 자체에 근본적인 변화가 있는 것은 결코 아니며, 대신 이전에 비해 좀 더 세련되고 내면화된 알레고리의 방식을 통해 표출되었다고 할 수 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상하이 세계박람회의 랜드 마크라고 할 수 있는 중국 국가관의 전시기획과 프로그램의 설계였다. 중국 국가관의 주제는 “도시 발전 속의 중화적 지혜(城市發展中的中華智慧)”였다. 주제에서 표방하고 있는 바와 같이 중국관에서는 단순히 중국의 우월성을 강조하는 것을 넘어 인간과 자연, 인간과 공간에 관한 고대 중국 철학과 세계관을 바탕으로 이를 하나의 ‘지혜’로 표상화하여 세계적인 보편성을 획득할 수 있도록 기대했다. 그래서 곳곳에 인간과 자연의 조화, 인간과 환경의 조화, 인간과 인간의 조화를 강조했고 두관(門冠), 보정(寶鼎)과 같은 기물로부터 다리, 두공(門拱), 원림(園林)과 같은 건축 기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전시물을 통해 ‘중화적 지혜’의 보편성을 표현하고자 노력했다. 또한 북송(北宋) 시기 비안징(汴京)의 번영을 기록한 장쩌두완(張擇端)의 《청명상하도(清明上河圖)》로부터 개혁개방의 성과를 넘어 미래의 저탄소 프로젝트까지 전통의 중화적 지혜와 미래 도시 건설의 조화라는 중국의 지향점을 구체적으로 표현해 내기도 했다.²⁹⁾ 하지만 표면적으로 그렇게 ‘조화’를 강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심스러운 이유는 그것이 진정한 타자와의 소통과 평등을 전제하는 조화라기보다는 전통의 중화적식이 그대로인 결구 ‘중화’를 중심으로, 그리고 중화의 존재

28) 베이징 올림픽의 정치화에 대한 비판은 다음의 글들을 참조: 정기웅, 〈스포츠의 정치적 도 구성에 대한 재고찰: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을 중심으로〉, 《한국시민윤리학회보》 제21집 2호, 한국시민윤리학회, 2008년 12월, 259-282쪽; 이기현, 〈베이징 올림픽에 대한 정치학적 해석: 중국국가건설과 스포츠 이벤트〉, 《신아세아》, 제16권 제4호 통권61호, 신아시아연구소, 2009년 겨울, 166-184쪽.

29) 중국관의 전시 프로그램의 내용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上海世博會事務協調局이 편찬한 《城市發展中的中華智慧》(上海: 文彙出版社, 2010) 참조.

자체를 인정하는 바탕위에서의 조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 때문이다.

사실 ‘동방의 으뜸(東方之冠)’이라 명명된 상하이 세계박람회의 중국관은 무엇보다도 그러한 중화의 아이러니를 잘 보여준 전형적인 건축물이었다.



[그림 3] 상하이 세계박람회 중국관

박람회장을 동서남북으로 가로지르는 한 가운데 중심축에 위치한 중국관은 연면적이 16,000㎡에 높이가 무려 69m에 달하는 엄청난 규모의 건물이다. 중국관은 중국의 전통 관모(官帽)였던 두관(斗冠)을 뒤집어 놓은 것 같은 역피라미드 형태의 붉은 색 건물인 국가관과 중국의 각 성, 직할시 그리고 소수민족자치구들을 전시한 비대칭형 직사각형 건물인 지방관의 두 부분으로 이루어졌다.³⁰⁾ 천자가 하늘에 제사 지내는데 쓰였던 보정(寶鼎)을 본 댄다고도 하는 국가관은 그 원형이 상징하듯 세계를 향한 중국의 웅비와 야망을 뜻하고 동시에 주변을 압도하는 국가의 존엄과 권위를 나타낸다. 전체적으로 불 때 하늘을 뜻하는 두관(斗冠) 모양의 거대한 국가관을 네 개의 대형 사각 기둥을 사이에 두고 땅을 상징하는 지방관이 떠받치고 있는 형국인데, 이는 곧 중앙으로부터 지방으로 이어지는 고도의 위계적 권력과 일원적 질서 체계를 상징한다.³¹⁾

30) 중국관은 중국공학원(中國工程院) 원사(院士)이자 華南理工大學 교수인 何鏡堂 교수가 설계한 것으로, “東方之冠、鼎盛中華、天下倉庫、富庶百姓”을 설계이념으로 하여 2007년 12월 18일에 착공하여 2010년 2월 8일에 완공되었다. 중국 국가관의 설계이념과 건축특색에 관해서는 《2010年上海世博會中國館》(華南理工大學建築設計研究院主編, 廣州: 華南理工大學出版社, 2010)을 참조.

31) 朱大可는 상하이 박람회 중국국가관이 신권위주의 건축의 전형적인 형태를 보여준다면 또 다른 측면에서 중국국가관 이미지 재현 방식의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첫째는 고대 두관을 본 딴 역피라미드 형태의 국가관이 그 본연의 권력성과 조형의 불안정성으로 인해 관람객들에게 모종의 위압감을 느끼게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국가관을 바라보는 개인

문제는 이러한 일원적인 위계질서가 단순히 중앙에서 지방으로 이어지는 중국 내부적 차원의 상징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중국관을 둘러싼 주변 국가관과의 공간 배치를 통해 하나의 총체적인 세계적 질서의 차원으로까지 확대되



[그림 4] 상하이 세계박람회 중국관 조감도

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사실이다. 박람회장 전체를 하늘에서 조감하면 동서남북이 교차하는 중축선의 남북으로 거대한 규모의 중국관이 우뚝 솟아있고 이를 중심으로 남쪽에 홍콩관과 마카오관, 서쪽에는 대만관, 그리고 그 주변을 둘러싸고 한국과 일본관을 비롯한 아시아관들이 배치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실제로 박람회장에 들어가면 사방 어느 곳에서나 다른 국가관들에 비해 월등한 규모로 우뚝 솟아있는 중국관의 위용이 한 눈에 들어온다.³²⁾ 마치 전 세계로부터 온 각국의 사신들이 관모(官帽를 쓴 제국의 황제를 우러러보며 알현하는 이른바 '만국내조(萬國來朝)'를 연상시키는 이러한 박람회의 공간 배치로는 우리로 하여금 자연스럽게 과거 중국 중심의 이른바 '천하관(天下觀)'으로 대표되는 중화제국의 욕망을 떠올리게 한다.

잘 알려진 바처럼 천하관은 중국이 세계의 중심이며 중국의 주변에 여러 이적

들에게 국가권력의 강대함과 함께 상대적인 미약함을 느끼게 함으로써 국가와 개인 사이에 권위주의적인 권력관계의 구도를 표상해 내었다고 보았다. 둘째는 이른바 '中國紅'으로 불리는 중국국가관의 붉은 색이 그러한 국가권력의 위압감을 더욱 강화하는 작용을 한다고 보았다. 그에 따르면 흔히 붉은 색을 중국 민족 고유의 색깔이라고 여기지만 이것은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이며, 권력을 상징하는 왕관(두관) 모양의 건축물에도 온통 붉은 색을 입힘으로써 정복, 강제, 경고 등의 의미를 더 한층 강렬하게 만들었다고 했다. (朱大可, 〈東方之冠: 一頂染紅的官帽〉 (http://blog.sina.com.cn/s/blog_47147e9e0100f1do.html))

32) 이렇게 중국관이 위용을 자랑하게 된 데는 다른 국가관의 고도를 모두 엄격하게 20m로 제한한 반면 중국관에게만 특별하게 약 3배가 넘는 69m나 되는 높은 고도를 허용함으로써 가능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모두 다른 국가관이 모두 중국관을 우러러보는 경관을 만들어냄으로써 중국 중심의 천하관에 입각한 세계질서를 표상해 내었던 것이다. (朱大可, 〈上海世博會的文化拼圖〉, 144쪽.)

(夷狄)들이 둘러싸고 있다는 것으로서, 고대 중국인들의 우주관과 세계 질서에 대한 인식을 대표한다. 천하관의 세계 질서 속에서 중국과 주변국과의 관계는 대등한 국가 대 국가의 관계가 아닌 주종적인 책봉과 조공의 관계이며, 질서와 조화 또한 중화의 존재와 권위를 인정하는 바탕 위에서 성립할 수 있는 것이었다.³³⁾ 이러한 중화사상과 천하관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대표적인 건축물이 바로 베이징의 쑤진청(紫禁城)이다. 쑤진청에 가보면 정전(正殿)인 타이허텐(太和殿)을 중심으로 남북을 가로지르는 중축선을 따라 사각형의 건물들이 끊임없는 방향의 형태로 베이징성 전체로 확장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는 하늘로부터 땅으로 이어지는 고도의 중앙집권적 위계질서와 함께 이른바 ‘하늘은 둥글고 땅은 네모나다(天圓地方)’로 상징되는 천하관의 우주관을 상징하는 것이다. 필자는 박람회장에 세워진 거대한 붉은 색의 중국관을 바라보며 마치 베이징의 쑤진청을 상하이에 옮겨 놓은 것과 같은 느낌을 받았다. 하지만 위계와 권위를 강조하고 제국의 부활을 연상시키는 이러한 건축물은 기본적으로 인류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미래의 국가간 공존, 공영을 지향하는 세계박람회의 이념과는 잘 부합하지 않는다. 특히 태생적으로 개방성과 다양성을 특징으로 하는 상하이의 도시 문화와도 대단히 부조화한 느낌을 준다.

사실 중국 도시의 발전과정에서 상하이와 베이징은 여러 면에서 대조적인 길을 걸어왔다. 베이징이 800여 년이 넘는 제국의 수도로서 철저한 중화적 세계관의 구현을 도시의 공간 이념으로 삼아왔다면, 상하이는 그와는 정반대로 19세기 중반 이후 ‘서세동점(西勢東漸)’이라는 근대적 국제질서의 변화 속에서 타의에 의한 식민지적 점유를 바탕으로 성장한 도시이다. 그래서 두 도시는 도시 발전에 있어서도 서로 다른 특성과 장단점을 가져왔다. 베이징의 경우 오랜 왕도(王都)로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2000년이 넘는 중국 도시 생활의 정수와 지혜를 한데 온축하고 있는 반면, 중앙집권적인 정부 권력(왕조)의 폐쇄성으로 인해 권위주의적이고 위계적인 도시 공간과 삶의 모습을 보여주어 왔다. 이에 비해 상하이는 기본적으로

33) 고대 중국의 천하관 개념에 관해서는 《중국사상문화사전》(미조구치 유조 외 엮음, 김석근, 김용천, 박규태 옮김, 서울: 책과함께, 2011)의 ‘天下’ 조목(271-288쪽)의 내용 참조.

타문화를 수용하는 넓은 문화적 포용성과 역동성을 갖고 있지만 태생적 식민성으로 인해 자본주의의 전지구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도시문화의 식민성 문제들을 보다 첨예하고 복잡한 형태로 내재하고 있기도 하다.³⁴⁾

두 도시 모두 중국 도시 발전의 대표적인 특징들을 보여 주고 있지만 그 어느 것도 그 자체로 21세기 새로운 미래를 지향하는 도시의 모델이 될 수는 없다. 결국 상하이 세계박람회를 통해 중국이 보여 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베이징과 상하이를 비롯한 이러한 중국의 도시 경험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바탕으로 미래 도시에 대한 창조적인 비전과 상상력의 발휘를 통해 진정한 '중화적 지혜'를 선보이는 것이었다. 이것이야말로 '도시'라는 주제를 내건 상하이 세계박람회에 중국이 기여할 수 있는 진정한 공헌이자 동시에 최근 20여 년 간 급격한 도시화 속에서 다양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 중국의 미래를 위해서도 보다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이었다. 또한 이는 그동안 중국의 부상과 함께 신중화주의의 부활을 우려했던 주변 국가들에게도 인류 공동의 문제에 대한 중국의 책임있는 의식과 태도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좋은 이미지를 줄 수 있는 중요한 기회였다.

상하이 세계박람회가 아쉬웠던 이유는 중국이 바로 이러한 좋은 기회를 잘 활용하지 못한 채 여전히 올림픽에 이어 정치적 차원의 벽을 넘어서지 못함으로써 국제사회의 진정한 리더로서의 이념과 가치를 주도해 갈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놓쳐 버렸다는 것이다. 설사 애초에 박람회를 유치하고자 했던 동기가 국가적 육망에 있었다 할지라도 만약 중국이 이에 머물지 않고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창출하고 이끌어가는 진정한 리더로서의 모습과 소양을 보여주었다면, 그래서 자국의 도시화와 도시 문명에 대한 성찰로부터 인류가 지향해야 할 바람직한 도시의 모습을 박람회를 통해 실천하고 보여주었다면, 이를 통해 중국이 얻을 수 있었던 성과는 오히려 훨씬 크고 긍정적이었을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그동안 중국정부가 줄곧 강조해 왔던 진정한 소프트파워이자, 21세기 세계를 이끌어갈 초강국으로서 중국이 세계를 향해 보여주어야 할 중요한 소명이자 책무였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34) 베이징과 상하이의 도시 발전과정과 서로 다른 특성에 대해서는 양동평의 《중국의 두 얼굴》, (장영권 옮김, 서울: 펜타그램, 2008) 참조.

상하이 세계박람회에서 중국이 보여준 모습은 여전히 많은 아쉬움을 남기며 G2로 대표되는 국제사회의 리더로서 중국이 걸어가야 할 길이 여전히 지난함을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5. 덧붙이는 말

2010년 상하이 세계박람회가 막을 내린 지도 이미 3년이 지났다. 현재 상하이 는 ‘포스트 엑스포(世博會)’의 구호를 내걸고 박람회를 통해 구축된 기반을 바탕으로 박람회 부지 및 자원의 사후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박람회장 한복판에 우뚝 솟았던 거대한 중국관은 이미 중국근현대미술품을 소장하고 전시하는 국가 예술박물관인 중화예술궁으로 화려하게 변모하여 문을 열었고, 엑스포센터도 세계엑스포컨벤션센터로 재탄생하여 상하이 국제 비즈니스와 전시컨벤션의 중심으로 도약하고 있다. 이 밖에도 박람회가 열렸던 황푸장변을 중심으로 엑스포 공원을 비롯한 대규모의 에코 레저벨트가 조성되고 있고, 친환경과 생태를 표방하는 고급 국제 주거단지 건설도 함께 추진되고 있다. 아마 머지않아 이곳은 환경과 생태, 컨벤션과 예술문화를 아우른 상하이에서도 가장 부유한 비즈니스 단지이자 도심 주거 지역 가운데 하나로 변모할 것이다. 상하이 또한 세계박람회를 준비과정을 통해 축적된 도시 기반 시설과 소프트웨어를 바탕으로 21세기 세계 무역과 금융을 주도할 메가시티로서의 웅대한 발걸음을 한층 더 가속화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이 대목에서 반드시 물어야 할 것이 있다. 상하이 세계박람회는 중국에게, 그리고 상하이에게 무엇을 남겼는가? 박람회의 화려한 경관과 이벤트가 사라진 자리에 들어서면 이 새로운 도시는 과연 누구를 위한 도시이며, 진정한 박람회가 내세웠던 것처럼 “생활을 보다 아름답게” 할 수 있는 도시일까? 어떠한 측면에서 상하이 세계박람회의 진정한 의미는 도시적 삶에 대한 이러한 근본적 의문과 함께 ‘도시’ 내부에서 ‘도시’를 극복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문제임을 우리에게 보여 줌으로써 이에 대한 보다 냉철한 인식과 도전이 필요함을 알려 준 것이 아닌가

한다. 실제로 세계박람회의 역사는 바로 이러한 인류의 과제에 대한 부단한 도전과 문명 성찰의 역사였으며, 이런 의미에서 비록 많은 아쉬움을 남기긴 했지만 상하이 세계박람회 또한 그 역사의 한 장으로서 인류가 가진 가능성과 한계를 함께 보여준 의미 있는 문화적 텍스트였다고 할 수 있다.

〈參考文獻〉

- 上海世博會主題演繹部, 《城市, 讓生活更美好—上海世博會主題解讀》, 上海: 東方出版中心, 2009.
- 上海世博會事務協調局, 《城市發展中的中華智慧—中國2010年上海世博會中國國家館》, 上海: 文彙出版社, 2010.
- 華南理工大學建築設計研究院, 《2010年上海世博會中國館》, 廣州: 華南理工大學出版社, 2010.
- 當代上海研究所, 《世博會與上海新一輪發展大討論紀實》, 上海: 上海人民出版社, 2003.
- 上海證大研究所, 《文化上海—2010: 把一個什麼樣的上海帶給中國和世界》, 北京: 人民出版社, 2003.
- 周秀琴 李近明, 《EXPO 文明的輝煌: 走進世界博覽會歷史》, 上海: 學林出版社, 2007.
- 鄭時齡 陳 易, 《世博會規劃設計研究》, 上海: 同濟大學出版社, 2006.
- 崔 寧, 《重大城市事件下城市空間再構—以上海世博會為例》, 南京: 東南大學出版社, 2008.
- 郁鴻勝, 《立意上海世博會的歷史回眸》, 上海: 上海辭書出版社, 2010.
- 孟 紅, 〈上海世博會舉辦權申辦始末〉, 《黨史縱橫》, 2010年 第4期.
- 炳 穎, 〈2010年世博會主題誕生的始末〉, 《上海綜合經濟》2003年 第4期.
- 朱林楚, 〈世博主題誕生回眸〉 (http://blog.sina.com.cn/s/blog_866e3eec0100v5zt.html).
- 朱大可, 〈上海世博會的文化拼圖〉, 《二十一世紀》(雙月刊), 2010年10月號, 總第121期.
- 朱大可, 〈東方之冠: 一頂染紅的官帽〉 (http://blog.sina.com.cn/s/blog_47147e9e0100f1do.html).
- 陸 曄, 〈影像都市的建構與體驗—以2010上海世博會為個案〉, 《新聞大學》, 2012年 112期.
- 〈上海升級, 以世博的名義〉, 《南方周末》, 2010年3月25日.
- 〈中國的選擇: 上海世博會主題誕生始末〉, 《上海教育》2008年 23期.

- 요시문 순야 지음, 이태문 옮김, 《박람회: 근대의 시선》, 서울: 논형, 2004.
- 요시문 순야 지음, 이종욱 옮김, 《민국박람회 환상: 전후 정치의 주술과 시민의식》, 서울: 논형, 2007.
- 주강현, 《상하이 세계박람회-상하이의 역사적 풍경과 파빌리온의 경관》, 서울: 블루&노트, 2010.
- 오 룡, 《상상력의 전시장 익스포》, 서울: 다우, 2012.
- 양동평 지음, 장영권 옮김, 《중국의 두 얼굴》, 서울: 펜타그램, 2008.
- 레이 지리, 「전시되는 것과 은폐되는 것: 세계박람회는 상하이에 무엇을 남길까」, 《플랫폼》, 2007년 11·12월호(통권 6호).

〈中文提要〉

2010年上海世博会是首次以“城市”为主题的世界博览会。“城市”作为人类生活的基本空间和文化形态，它表现出的不仅是人类生活的物质内容，而更多的是人类对过去、现在、未来的生活理念和想像。上海世博会的城市主题，主要由城市人、城市本身、城市与地球、城市历史和足迹、以及城市未来的想像等五个方面来构成。不过，作为世博会的主办城市，上海在这过程中如何呈现自己独特的城市理念以及对未来城市的方案，我们对此不能予以很高的评价。

本来上海借此机会，好好儿表现出自己的城市特点以及从中酝酿出的未来城市发展方案，可其结果似乎不能令人满意。尽管上海也为呈现博览会的主题做了许多努力，同时也通过城市主题馆和城市最佳实践区等的建设提供了一些未来城市发展的设想，可总的来说，由于在具体的准备过程中以及博览会的运用方式上仍然摆脱不了过去发展主义式的城市建设模式，就导致了理想的城市主题和现实的城市建设之间严重的偏差。

另外，通过世博会这种大型国际活动要展现国力的中国政府的欲望也助长了这个局面，而将这种欲望最为象征性地体现的是中国国家馆的建设。被命名为“东方之冠”的上海世博会中国馆，尽管标榜为体现“城市发展中的中华智慧”，而实际上其建筑背后支撑的是传统中国的“天下观”理念。“天下观”作为传统中国人世界认识和意识形态的基本模式在本国建筑上多少运用本来无可厚非，可在世博会那样探索人类未来生活和科学发展方向的建筑上运用不太合适，并与以开放和多样为生命的上海文化也不大吻合，从这个角度来看，这次世博会中国馆的建筑不能不说是个遗憾。

关键词：上海世博会, 城市主题, 空间, 中国国家馆, 城市欲望, 国家欲望

이 논문은 2014년 4월 15일에 접수되어 2014년 5월 15일에 심사가 완료되고 2014년 5월 20일에 편집회의에서 게재가 확정되었음.